안내중학교
발행일 2018.11.08.
발행인 조 동 기

10월 안내중이모저모

눈빛 초롱초롱 호기심 가득
시와 만나는 시간

안내중학교는 지난 4일 아동문학가 박진숙 작가와“시와 만나는 시간”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책의 저자를 학교로 초청해 직접 만나보는 프로그램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에서 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책의 작가와 함께 책을 읽으며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갖고, 독후 체험활동을 통해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안내중학교 조동기 교장은 "작가들과 소통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며, "향후에도 학생들이 책에 더욱 친근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천 국립생태원
3개교 연합 현장체험



10월 12일 안내초, 안남초, 안내중학교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실시되었다. 2년째 인근 학교와 연합으로 실시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동생들에 관심과 행복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나의 ‘생태발자국’체험과 개미의 과학기지, 강산이의 모험을 다룬 4D체험 등을 하며 지구환경과 에너지,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많은 직업이??
충북직업교육축제 참가



10월 18일(목) 청주공고에서 충북직업교육축제가 열렸다. 도내 모든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가 자기 학교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소개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창업동아리를 소개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행사였다.

학생들은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며,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안내중 발전협의회(2차) 개최



10.19 두 번째 안내중 발전협의회가 열렸다. 1차 회의 때의 내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안내중 발전협의회의 지속성을 꾀하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학교 밖 이동수업 활성화, 둘째, 해외체험학습 추진, 셋째, 장학금 지급 범위 및 액수 확대, 넷째, 드론교육 활성화 등이 논의되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의지 발현, 장학금 등 금전적인 지원을 위한 동문회의 역할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에 대한 실현을 위해 학교에서는 드론 구입과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드론 수업 등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제주도 이동수업의 실시, 해

외 체험학습 추진, 장학금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내중 발전협의회의 제안과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안내중학교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중학교 자전거 여행!
단풍으로 물든 「정지용의 향수」를 만나다

안내중학교(교장 조동기)는 10월 23일(화) 마을여행과 생태교육을 위한 자전거 여행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한 자전거 여행은 옥천 향수100리길 중 경관이 수려하고 비교적 코스가 완만하며 통행량이 적어 학생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재잘거리며 타기에 딱 좋은 코스였다. 안남면사무소에서 출발하여 폐교된 청마분교까지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과 금강을 끼고 왕복 24km를 신나게 달렸다.









작년에 처음 자전거를 배워 힘겹게 완주했던 학생이 올해는 확연히 달라진 실력으로 거뜬히 완주하여 성취감으로 얼굴이 빛났으며, 학생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겠다고 중년의 나이에 자전거를 배워 처음 도로에 나온 선생님도 있었다. 모두가 함께 해서 더욱 즐거웠던 자전거 여행을 통해 학생들은 한참 수확기에 접어든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과 따스한 햇살과 바람, 붉게 타들어가는 가을산의 정취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다. 유난히 비가 많았던 여름 덕분에 작년에 금강을 뒤덮었던 녹조도 사라져서 한층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전거 여행 후 소감 발표를 통해 체력을 키워 우리 고장 향수100리길의 전체를 완주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로 자리매김 되어감을 보여주었다.

자랑스런 송형근 3위!!
제41회 교육감기 시.군대항 중학교 육상대회

제41회 교육감기 시.군대항 중학교 육상대회에 참가한 안내중학교 송형근(2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학교와 개인의 명예를 올렸습니다.

지난달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400M에 출전하여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조동기 교장 선생님은 꾸준히 노력하여 첫 출전한 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 해 달라고 당부 하셨다.



< 안내중을 빛낸 형근이에게 박수를...>

제주도에서
평화의 날개를 띄운 안내중학교













안내중학교(교장 조동기)는 10월 29일(월) ~ 31일(수)까지 제주도 교과연계 이동수업을 실시하였다. 『평화』란 주제를 가지고 관련된 교과들이 통합하여 학생들이 제주4.3사건 전후의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고,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4.3오름, 4.3평화공원 등을 방문하여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우리의 피눈물나는 역사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의 시대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이동수업에서 학생들은 사전에 통일소원 · 나라사랑카드 만들기, 한반도지도 퍼즐 맞추기 등을 하였으며, 4.3평화공원에 방문하여 전시물을 관람한 뒤 통일소원을 발표하고 다함께 통일 노래를 부르는 뜻깊은 행사를 실시하였다. 역사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통일 노래에 학생들은 숙연함과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한 염원을 가슴속에 품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동기 교장은 교과연계 현장체험 이동수업의 효과가 뛰어나고, 소외되고 낙후된 농산촌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주는 우수한 활동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